

# 구약논단

제15권 2호(통권 32집) 2009년 6월 30일

장 광용(송실대) 구약성서에 잠재된 축사(逐邪)관련 본문 연구 .....	211
본 연구는 구약성서의 유일 신앙으로 말미암에 철저히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성서에 잠재된 고대 근동의 축사제의를 검토하는 데 있다. 축사의 기원과 발달, 구약성서의 축사 기록들을 검토하였다.	
Chang, Kwang-Yong A Study of Texts Relevant to Exorcisms Latent in the Old Testament .....	211

---

## 구약 성서에 잠재된 축사(逐邪) 관련 본문 연구

---

장 광용 | 송실대

### 1. 들어가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귀신의 정체에 관한 문제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逐邪(exorcisms) 使役을 오늘날에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무속/주술 행위로 치부해 버릴 것인지 등으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극동 아시아의 한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世界 여러 나라들과 문화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오로지 중국 대륙 문화와 개화기 이후 일본의 해양 문화와의 접촉이 고작이었다.

이렇게 서양 문화와 거의 접촉할 수 없었던 우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성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선, 수천 년이라는 시간적 차이와 수억만 리라는 공간적 차이를 극복하며, 성경 본문에 접근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기록 이전의 세계,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세계,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 유대주의에 뿌리를 둔 기독교가 어떻게 현재에 이르도록 발전해 왔는가를 이해하여, 오늘의 정황(context)에 맞추어 성서를 재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古代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비교 문화/문학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학제간의 연구 접근과 특별히 본문의 이해를 위해 언어/ 문헌학적 접근, 곧 통시적 연구(Diachronical Study)와 공시적 연구(Synchronical Study), 그리고 고고학적, 민속학적, 신화론적, 사회 인류학적, 심리학적 접근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 대상을 다각적으로 관찰하며,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대한 연구 여행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신약 성서와 달리, 구약 성서에서는 겉으로 보아서는 逐邪에 관한 기사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간혹 몇 군데에서 암시하고는 있으나, 신약 성서 공관복음에 빈번히 나타난 예수의 축사 기사와 같은 사례는 전무하다. 그래서 (런던대 UCL M. Galler 교수를 포함한) 약간의 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문헌에는 토지 매매에 관한 계약 문서나 축사 의식에 관한 문서들이 허다하게 나타나는 데 반해, 구약 성서에 그것들이 거의 없는 것은, 구약 성서가 기록됐던 당시에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토관 문서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sup>1)</sup>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건이나 추측에 지나지 않으며, 필자의 견해로는 고대 근동과 시리아-팔레스타인의 가족 종교(Family Worship)에서 비롯된 여러 종류의 교령적 점술과 마술 행위를 통한 민속 의학적 행위가 야훼이즘(Yahwism)에 강력하게 도전하였기 때문에, 종교/신학적 정치상의 이유로 이를 엄단했고, 유다 왕 요시아의 종교 개혁 이후에 야훼이즘에 위배되는 모든 문헌들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분서(Documentary Holocaust)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논제의 배경인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고대 근동의 종교와 문화와 문학적 요소들이 어떻게 구약 성서에 연계되었고 영향을 끼쳤는지를 다음과 같이 추적해 보겠다.

## 2. 축사의 기원과 그 발달

축사(액막이, 액 매(뚬)기와 풀기) 행위는 원래 원시 지역 사회에서 타부(Taboo 또는 Tapu), 곧 원시 사회의 어떤 특수 계층 또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금기 사항이나 제한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초자연적 존재의 노여움을 받아 부정하게 된 자를 정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주술 의식이었

1) Markham J. Geller, "Babylonian Influence on Hellenistic Judaism," in Jack M. Sasson (ed.), *Civilization of the Ancient Near East* Vol. 1(New York: Scribners, 1995), 43-54쪽.

다.2) 오스포드 영어 대사전이나 우리말 대사전을 종합해서 부언하면, 축사란 “어떤 인체나 장소에 침투한 사귀/악령(들)이나 사귀(악한 영향력)/살기(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파손한다는 독하고 모진 귀신의 독기)와 부정을 주술(일정한 절차에 따라 외우면, 자연, 神, 혹은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글귀나 진언, 혹은 무의미한 철자의 연속)이나 경문 혹은 기도나 종교적 의식(ritual)을 통해서 물리쳐 내쫓는 행위”를 일컫는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사람을 점유하고 있는 귀신들은 역시 축출돼야 할 타부의 대상으로서, 이 사람들을 점유한 귀신들을 축사할 경우에는, 고대 근동과 초기 회랍의 맹세 의식에서처럼 그들은 균열되고, 절단된 동물들이나 녹는 밀랍(wax), 또는 소상(figurine) 속으로 몰아넣는 축사적 정화 의식에 의하여 전이된다. 그 일례로, 수메르어 MAŠMAŠ는 아카드어 mašašu에서 유래된 명사형이며 수메르어에 도입된 외래어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더 많은 사례가 수메르 문서보다는 셈족의 초창기 주문(주술) 관련 문서들에 자주 나타나는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아카드어 mašašu는 특별히 종교 의식에서 ‘문질러 지워 없애는 자’, 곧 ‘정결하게 도말하는 자’로서 종교 의식을 통해 사람과 사물, 장소를 정결케 하는 사제들로서, 마술과 지혜의 신인 Ea, 또는 Asalluḫi의 아들로, 수메르의 주문 토판에서는 축사(구마) 사제로 등장한다.3) 이에 반해, (w)‘ašipu는 적대적인 귀신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신적 능력을 이끌어 올려 주문과 마술적 처방/공식에 따라 정결과 관련된 능력 있는 말을 구사하는 자를 가리킨다.4)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축사 행위의 전통적 형식은 아카드인들에게서 유래하였다. 그들은 선조인 수메르인들의 학식과 기교를 물려받아 그들의 종교 의식으로 채택하여, 초자연적 세력들에 대한 그들의 신념에 부

2) R. C. Thomson, *The Devil and Evil Spirits of Babylonia*. (London: Kessinger Pub. Co., 1903), 39-50쪽.

3) K. Deller/W. Kazuco, “Šukkulu, Šakkulu, ‘abwischen, auswischen’.”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70 (1981), 213f.쪽.

4) 참조 *Materialien zum sumerischen Lexicon* 12, 133, 150쪽. [[u-ka-kù-gál>South Babylonian ‘kakugallu’ = Assyrian ‘ā-š[ī]-plu’, ‘축사자’; kakallūtu는 ‘축사자의 술책/재주(craft).’ 바빌로니아 주문(incantation) 토판 문헌에 의하면, Marduk은 Ea의 아들로 축사자의 역할을 수행함. šiptu šipat Marduk(<<sup>d</sup>AMAR.UTU, ‘태양신 Utu의 송아지’)=‘축사자 ‘마르둑’의 주문”

합되게 확장시켜 나갔다. 필요한 음성적 변화나 정확한 직역이나 의역의 번역상 모든 미비점을 간과한 채, 유령 세계에 관한 원래의 개념을 극히 제한적으로 수용해 온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셈족들의 유산은 바빌로니아에 유입되었고, 거기서부터 투라니안(Ural-Altai)세계와 시베리아 세계로 전해졌다. 원시 수메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초원 지대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며, 저승으로 사로잡아 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악령들을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인식하였다:

첫째, Et(d)e(i)mmū로 이들은 어떤 몇 가지의 이유 때문에 안식처를 발견하지 못한 죽은 사람의 영혼들로 지상에서 목적 없이 망령처럼 유랑한다. 이 유령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사를 해 명계(realm of shades/Hades), 어둠의 집, 한번 들어가면 아무도 다시 나오지 못하는 곳인 Nergal 신좌에 입주하여,<sup>5)</sup> 거기서 이들은 진흙과 먼지를 먹으면서 비참하고 초라한 생계를 꾸려 가는데, 이때 지상에 있는 후손들과 친척들이 봉헌하는 제물과 헌주(Libation)에 의존한다. 이 Et(d)e(i)mmū는 명계나 지상의 영들인 Abhazu처럼 곧바로 인간의 육체를 점유하는 귀신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아, 불행하게 하며, 주로 정신 질환을 유발시키는 사귀들이다.

이 영적 존재는 시신이 무덤에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된 자들의 유령들은 물론, 난폭하게 죽임을 당했거나 변사나 비명에 죽어 원한 맺힌 원혼들로서, 어떤 의(임)무를 다하기 전에 이승을 떠난 자들의 영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으나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유령으로 어디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고, 사제들이 마술적 술책으로 그들을 축사할 때까지 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출몰하여, 괴롭히는 망령들이다. 바빌로니아 민족들은 이런 유령들을 날개 돋친 피조물들로 생각했으며, 한 밤중에 활동하는 박쥐나 부엉이처럼 묘사했다.<sup>6)</sup>

둘째, utukku lemnūtu, '악령 류'로, 수메르어 UDUḠ-HUL에서 유

5) T. M. Green, *The city of the Moon God: Religious Tradition of Haran*, (Leiden/New York/Köln: AveBooks, 1992).  
 6) J. A. Scullock, "Magical Uses of Ancient Mesopotamian Festivals of the Dead," M. Meter/P. Mirecki (eds.), *Ancient Magic and Ritual Power*, (Leiden: Brill Academic Press, 1995), 93-107쪽.

래한다.<sup>7)</sup> 이들은 원래 지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서, 지면의 상  
 下를 배회하는 육체를 벗어나, 이승을 하직한 인간의 영들이다. 이  
 영적 존재들이 타계한 영들인 Et(d)immi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은 사막에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잠복  
 했다가 뛰어나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악귀들이다(참조. 창 4:  
 7의 Heb. rōbētz는 아카디아어로는 rabāz, “뛰어나가 기습할 준비  
 가 되어 있는 귀신”을 뜻함. 또한 E. A. Spicer의 Genesis in  
 Anchor Bible Commentary를 보시오). 그들은 산이나 바다나 무  
 덤 지역(참조 막 5: 5)을 거처로 삼으며, 또한 그들은 단순히 흘겨  
 보는 악한 눈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sup>8)</sup> Etemmu가 일반적으  
 로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반해, Utukk는 열병이나 치질처럼 육체적  
 질병을 유발시킨다.

Utukku란 용어는 몸의 2/3는 신이며, 1/3은 인간이며, Uruk왕  
 G(B)ilgamesh의 요구에 따라, Nergal신이 영계에서 일으킨 Ebani  
 의 영으로 나타나며,<sup>9)</sup> 후일에는 귀신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다. 위와 동일한 이념과 신념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도 통용되었는  
 데, 그 일례로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한 밤중에 엔들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여인은 땅으로부터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렸는데, 이때 영현한 사무엘은 사울王의 질문에 응답한 일이 있다  
 (삼상 28: 7). 흥미롭게도, 같은 셈족어의 일원인 아시리아어 'āšipu  
 란 용어 역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자', 곧 초혼자란 뜻  
 으로 주(마)술사나 강신술사를 의미하는 칭호였다(참조 마 10: 8).

셋째, Alû인데, 이는 반인 반수로서 어두운 구석이나 바위 동굴 속  
 에 숨어 살고, 폐허나 버려져 사용되지 않는 건물에 출몰하며, 주인  
 집을 떠나 제멋대로 배회하며 거리를 가로질러 슬며시 은신처로 도  
 망치는 들개와 같은 섬뜩한 영들이다. 이들은 방심/경솔한 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잠복 대기해 있다가 겉옷으로 그들을 뒤집어 씌워 생  
 포키 위해 은신처에서 돌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sup>10)</sup> 한밤중  
 에 침실로 침투하여, 침대 너머에 서서 피곤하게 잠든 사람들의 잠

7) Markham J. Geller, *Forerunner to UDUG-HUL: Sumerian Exorcistic Incantations*. (Stuttgart: Steiner Verlag, 1985), 3-15쪽.  
 8) E. A. Budge, W., *Amulets and Talismans* (New York: Citadel, 1961), 354-365쪽.  
 9) R. C. Thomson, *The Semitic Magic: Its Origin and Development*. (London: Kessinger Pub. Co., 1908).  
 10) E. Langton, *Essentials of Demonology: A Study of Jewish & Christian Doctrine, Its Origin & Development* (London: Epworth Press, 1949), 2-4쪽.

을 도둑질해 가는 영들이다. 참으로, 이들은 가공할 유령들이며, 종종 입을, 수족이나 양쪽 귀가 없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들은 아마도 Lilītu (Heb. Lilith), 또는 Ardat Lilī (Lilū-woman)이며, 동물 숭배를 하던 메소포타미아인이 페허나 황량한 사막 지역의 들고양이나 박쥐 등과 함께 산다고 여긴 밤의 여신(사 34: 14; UT 23:7,104)의 후손들이며, 또한 이 여신은 어떤 남자에게 달라붙어 기생하는 영들(Dybbuqīm)이다(참조 Succubus). 후자의 개념은 이 여신이 아담에게 낳아 준 악령들로서 유대 랍비 문학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포세이(Fossey)에 따르면, 아카드어 alû는 수메르어 GALLŪ의 역어로, 특히 남풍이 휘몰아쳐 생긴 사나운 폭풍우를 의미하며, 의인화된 강력한 유령으로서 성급하고 충동적이고 완고해, 억제할 수 없는 천상의 황소 형태를 취한다.<sup>11)</sup> 이 용어는 아마도 아카드어 elû, '상승하다'의 과거 분사형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다분한데, 이것은 육체가 소멸된 후 생명의 그림자를 이 세상에 드리우는 집요한 초자연적 세력으로, 죽음의 세력에 의해 목숨이 탈취된 자들의 영이요, 초혼자들이 지상에 일으킨 영혼들이다.

풍부한 민속학적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귀신론의 대두는 억압당하는 사회 구조나 제도의 불합리/부조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상실, 시민의 사회 구조 악 극복을 위한 외관상의 무능력과 맞물려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묵시 문학에서는 종교적 갈등과 정치적 박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당대에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을 의인화시켜 악귀로 등장시켜 정의의 사자와 대적하게 한 후, 중국에는 역사의 무대에서 추방당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sup>12)</sup>

그래서 중세 시대 사람들은 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영적 분쟁의 일환으로, 마술을 정죄하고, 마녀를 사냥하는 형태로 사회의 불의를 대처했다. 유사하게도 귀신들림에 대한 개인적 경험 안에서, (능동적인 사회적 항거와 개혁이 불가능해 보이는 때에) 정죄자(축사자)와 피정죄자(귀신)는 묵시 문학에서처럼 폭군의 박해를 안전하게 대처하는 수

11) Charlse Fossey, *La Magie Assyrienne*, (Paris: Felix Alcan, 1902), 34쪽.

12) J. B. Russell, *The Devil: Perception of Evil from Antiquity to Primitive Christianity*, (Ithaca/London: Cornell Univ. Press, 1977).

단으로서 사회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상징적인 기법(암호)을 사용하게 된다.<sup>13)</sup>

이미 위에서 관찰하였듯이, 귀신을 의미하는 용어들은 귀신의 거처인 지하 세계와 그들이 산 자를 사로잡기 위해 그곳으로부터 출정하는 일과 관련한 상황과 이념에 매우 제한되어 왔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사람이 한 번 이 유령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면 귀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며, 이 때 유일한 처방은 환자들을 괴롭히는 귀신의 저주와 영향력을 몰아내는 축사자들에게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고, 귀신을 엄명에 처하고 결박하는 길밖에 없었다.<sup>14)</sup> 무속인들처럼 축사자는 의료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희생자들을 구출하고, 귀신의 세력과 영향력을 홀로 제어/분쇄할 수 있는 신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전문적인 계층을 형성했었다.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는 적어도 사제들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악령의 세력들과 전투하는 것이었다. 주문 공식, 마법, 행운과 구마적 부적은 사제들에 의해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수메르-아카드인의 신전 제의 중 가장 오래된 유산의 한 몫에 속한다.<sup>15)</sup> 그 일례로, Bekhten 왕자의 딸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축사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집트인들의 마술과 달리, 바빌로니아 마술은 대개 의술(약)과 결부되어 있고, 그 의술이 어떤 환자들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면, 그 밖의 질병들은 귀신이 들러 발병한 것으로 취급하여, 일찍이 종교 의식으로 간주한 축사 의식으로 치료하였다.<sup>16)</sup> 이런 목적을 위해 일정한 초혼과 퇴거 명령의 공식이 채택되었고, 약간의 남성 신과 여신들이 동원되었고, 악령들을 추방하고, 이들이 일으킨 병을 치유하기 위해 축사 사제는 초혼과 액막이 의식(굿)을 행하였다.

13) Claude Lévi-Strauss, "The Sorcerer and His Magic" in A. C. Lehman & J. E. Myers (eds.), *Magic, Witchcraft and Religion: An Anthropological Study of the Supernatural* (Palo Alto & London, 1985), 263-72쪽.

14) A. R. Radcliffe-Brown, "Taboo," W. A. Lessa/E. Z. Vogt (eds.), *Reader in Comparative Religion: An Anthropological Approach*, (New York/Evanston/London, 1965), 112-123쪽.

15) G. Cunningham, *Deliver Me from Evil: Mesopotamian Incantations 2500-1500 BC*,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7), 1-4쪽.

16) T. Oesterreich, *Possession and Exorcism: Among Primitive Races in Antiquity, the Middle Ages & Modern times*, (New York: Causeway Book, 1974), 149-50쪽.



### 3. 구약 성서에 나타난 축사 기사들

구약 성서에서는 유일하게 직업적 축사자(강신무)를 의미하는 아람어 용어 'ašaph/'āšephîn (pl.)이 단 2장 10, 27절, 4장 4절, 5장 7, 11, 15절에 나오고, 또한 히브리어 용어 'aššāphîm'이 단 1장 20절, 2장 2절에 나타난다. 일찍부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람어 'ašaph'은 아카드어 'āšipu (초혼자 또는 축사자)에서 차용했고, 더욱 미묘하게 환자들의 꿈을 해석하여 귀신들이 언제, 어떻게 환자의 심신 속에 들어갔는지 예측할 수 있었던 진단자, 또는 처방자였고, 기도문과 주문을 낭송하던 사람들이었다.

버든(Burden)에 따르면, 이 'āšipu, '구마 사제'는 (혹)마술사와 마녀들을 격퇴하는 마술 퇴치 의식의 집전자였으며, 악령을 대적하고 엄명하여 추방하는 기술적인 언어 구사자였다.<sup>17)</sup> 어원상으로 아람어 'āše-phîn과 히브리어 'aššāphîm은 아카드어 'āšipū와 동족어이며, 이들의 언어 형태는 궁극적으로 수메르어 ISIB, '초혼자'(아카드어로는 i-šip-pu)에서 유래하였다.

다니엘서 전체 문맥에서 'āšephîn은 항상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과 연계되어 사용되었다:

1. ḥartumîm: (느브갓네살의 꿈을 풀이했던) 해몽가들(oneiro-mancers)
2. mekhaššphîm: 약초/주문으로 상대를 황홀케 하는 (셈족) 약제/주술사들(enchanters)
3. kadšîm: 일월성신과 연합해 꿈을 해몽하고, 귀신을 추방하는 점성술사들<sup>18)</sup>

이 용어 'āšephîn은 쉘투아진트에서 μάγοι로, 불가타에서 magi로 번역되었는데, 아마도 초혼자와 축사자를 의미하는 아카드어 'āšipu와 동일한 의미로 번역되었을 것이다(참조: Lat. magus < Gk. magos [pl. magoi; Eng. Magi]. 비교: 주후 1세기 이후 페르시아어 'magus'란 용어는 시리아어 'magusai'라는 단어 형태로 대응되어, 주로 바빌로니아

17) J. Burden, "Magic and Divination in the OT and their Relevance for the Church in Africa," *Missionalia* 1 (1973), 103-111쪽.

18) J. J. Collins, "The Court-Tales in Daniel and the Development of Apocalyptic," *JBL* 94 (1975), 218-234쪽.

의 사이비 지혜로 명성을 날리던 마술사들 혹은 점술사들을 가리켰음[행 8: 9-24]. vs. O. Per. magus, 'Zoroastrian priestly class.' [마 2: 1]).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팔레스타인에서 기원전 2세기경에 쓰여진 다니엘서는 신 바빌로니아 식 사고방식과 언어 표현 양식과 일치할 것이며, 다니엘서의 아람어 용어와 히브리어 용어들이 신 바빌로니아 용어와 같은 개념이었을 가능성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어떻게 '축사자'가 느브갓네살 왕이 꾀 악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 특별히 바빌로니아에서 악몽을 해몽할 때, 악몽을 유발시킨 귀신(들)과 '불길한 전조들'에 의해 위협받은 이런 해악을 모두 추방하기 위해서 축사 사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용어는 그 정황에 꽤 잘 어울리는 용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이 'āšep̄hîn은 귀신에 대한 전문 지식과 악령을 능가하는 구마 능력을 발휘하도록 부름을 받은 직업 축사 사제였을 것이다. 그들은 느브갓네살 王의 꿈을 해몽하고, 현몽 시 침투했던 귀신을 추방하여 공포로부터 왕을 진정시켰으며, 악몽을 꾸도록 유도한 자들, 곧 흑마술사(마녀와 박수)들의 일을 역마술(counter magic)을 통해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들이나 망령들에게 악몽을 수단으로 느브갓네살 왕을 괴롭힌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 소환했을 것이다.<sup>19)</sup>

위에서 이미 고찰하였듯이 구약 히브리 성서에서는 축사 기사를 거의 발견할 수 없지만, 삼상 16장 14-23절에 음악에 의한 다른 형태의 축사 기사가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혔고, ...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 위에 임했을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취해 그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연주했다; 그러자 악령은 그를 떠났고, 사울은 마음이 쾌유하여 온전해졌으며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비교, 왕상 16: 14-16, 23; 19: 9(LXX)).

밀교적 의식을 행하던 솔로몬 왕과 솔로몬 문학의 전승에 따르면, 다윗은 유다의 왕정 초기에 탁월한 축사가로서, 사울은 초자연적 지혜와 대적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악령들을 내쫓는 구마의 대가가 되기를 기대했다(참조: 삼상 16: 23 (LXX); Jewish Anriquities VI,

19) A. Guillaume, *Prophecy and Divination among the hebrews and other Semitics*, (London: Hodder & Stoughton, 1938), 213-32쪽.

211, 214). 사울 왕의 정신착란 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손가락으로 수금을 타는 이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는 음악의 구마적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삭스(C. Sachs)는 이 사건을 명백히 귀신들린 사울을 위한 축사 행위로 단언한다.<sup>20)</sup> 그는 다윗의 기악은 사울의 광란을 진정시키는 효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참조 삼상 16: 23). 한편 파머(Farmer)는 삭스처럼 다윗이 연주했던 음악의 효험에만 주목하고, 다윗의 수금 연주로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이 추방되었다고 주해한다.<sup>21)</sup> 그러나 그는 삭스와 달리, 사울의 귀신들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히브리 문학과 아랍 문학에서 모두 마술적 능력이 작용하는 다윗의 음악을 두고 언급한다. 파머의 견해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음악의 제반 능력은 복합적이고 상징적인, 또는 우주 안에서의 일정한 숫자의 교묘한 조립으로 생성된다고 본다. 본질상 마술적이었던 이 능력은,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 치료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둘째, 메미암(A. P. Merriam)은 파머처럼 다윗이 수금을 타 사울을 진정시킨 음악의 마술적 효과에만 자신의 이론을 국한시키고, 음악의 심신 치료효과는 특별히 음악 치료로 분류되고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2)</sup> 그러나 그것은 그가 음악을 본문 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마술적 치료 수단으로 오해한 것 같다.

위에서 논의 중인 이 문제가 이처럼 난해한 것은, 사울 자신의 영혼의 혼수상태가 어떤 미묘한 정신-신체적(psycho-biological) 요소들로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며,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이 귀신들린 사람처럼 묘사되어서 일 것이다.<sup>23)</sup> 령 추방시 사용됐던 현존하는 바빌로니아의 주문은, 이 귀신들림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매우 정교하고 세세히 표현해 준다.

---

20) C. Sachs,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 (New York: W. W. Norton & Co. Inc., 1940), 105쪽.  
21) H. G. Farmer, *The Influence of Music: From Arabic Source: A Lecture Delivered before the Musical Association*, (London: Oxford Univ. Press, 1926), 12쪽.  
22) Alan P. Merriam, *The Anthropology Music*,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1964), 111쪽.  
23) G. A. Barton, *Semitic and Christian Possession. In Encyclopaedia of religions and Ethics*, 10 (1918), 133-139쪽.

셋째, 위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령의 역사에 의한 사울의 심리적 억압과 집착 상태는, 한편 하나님의 부재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써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그 기묘한 음악 소리를 통해 잠시 상실했던 예언의 영감을 회복하였으며, 다윗은 하나님과 사울을 화해시키기 위해 수금을 계속 연주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무엘 상에 나타난 다음 두 구절들은 사울이 다른 예언자들 가운데 있었을 때 처음으로 그를 사로잡은 예언적 혼수상태에서의 야료함(nabē'의 재귀형(삼상 10: 5-6))과 일시적 격정과 열광(삼상 18: 10-12)이 그의 악령에 사로잡힘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위 두 성경 구절이 두 사건을 직결시키지는 않더라도, 사울이 다윗에게 살기 가득하게 격분하고 위험 수위를 넘어 편집증적 시기심을 드러낸 것은, 수금 연주자로 다윗이 소개되었을 때 사울의 눈에 다윗은 이미 강력한 경쟁자로 돋보였을 것이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공포심 때문에 그는 환각에 빠지게 되었을 법하다. 당시 사울 주변의 대내외적 상황은 다윗에 대한 이러한 시기적 공포심과 살인적 분노를 더욱 자극해, 사울은 다윗을 벽 모퉁이에 창으로 쏘으려고 그를 밀쳐 넣었던 것이다(삼상 18: 10-12).

다행히 중세 시대의 주석가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란 어구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속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명성에 극찬하자 사울이 끔찍한 창 질을 하게 만든 그 시기적 공포심으로 이해했다.<sup>24)</sup> 사울의 이 표독한 시기적 공포심은 과거에 뇌가 손상되고 연소된 검은 담즙(중세 의학에서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하던 우울질 체액)이 과다하게 분출되어 발작하는 일종의 뇌 질환에서 비롯했을 것으로 후대 의학자들은 갈파하였다. 과거의 성현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두뇌의 모든 결합과 정신 착란과 정신 분열증으로 인한 모든 통제 불능의 격분과 광기를<sup>25)</sup> 악령(rūah rā'āh)의 개입으로 보았다.<sup>26)</sup>

사실 우울증의 발작은 본문 자체가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24) H. Shy, “Ruah Rā'ā (Melancholy).” *KROTH* Vol. 8 No. 5-6 (1982), 94-102쪽.

25) 참조 Spirit as the seat of emotion(Isa. 26:9) & spirit as the organ of mental acts(출 28:3 신 34:9).

26) H. Shy, *Al-Murshid al-Kafi of tanhum ha-Yerushalmi*, Dissertation of Hebrew University, Jerusalem, Vol. 2 (Lexicon in Arabic & Hebrew tr., 1975), 393쪽.

우울증에 빠질 때마다(참조, 삼상 16: 16, 23; 18: 10), 실제로 다윗은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사울을 문병하곤 했으며, 증세가 완화 되었을 때는 항상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양떼를 돌아보았다(삼상 17: 15). 게다가 삼상 16장 16, 23절, 18장 10절에서 사울은 빈번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프로이스(J. Preuss)에 따르면 사울의 돌출 행동(anomalies)은 악령들에게 외부 공격을 받고 침투를 당해서가 아니고, 정신 신경 의학적 영역에 속한다.<sup>27)</sup> 일례를 들면, 사울은 첫 번째 통치 기간 동안에 과도하게 연소된 검은 담즙(우울 체액) 때문에 심인성 공격을 당해 예언적 황홀경의 환각 상태에서 야료했으며, 그의 왕정 말기에는 혹독한 편집을 겪었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금지된 (밀교) 의식'인 강신술에 의존함으로써 야훼를 배신했고, 그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그는 전사하게 된다(삼상 28: 3-19).

이제 여기서 세계의 문화 비교 연구가인 무르독(G. P. Murdock)의 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세계의 문화를 비교 연구하면서, 초자연적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서 인간의 인체에 침투하고 점유하여 영·육·간에 모든 우환과 질고를 일으킨다고 믿는 마술적 병인론은 초자연적 세계관을 가진 문화권에서는 거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갈파한다.<sup>28)</sup>

지금까지 위에서 인용한 성경 본문들이 메도페르시아 제국 시대 이전의 기록이라고 가정한다면, 바빌로니아의 sky god인 Anu가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의로 영들과 선한 영들을 파송하였듯이,<sup>29)</sup>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의로 선한 영과 악한 영을 그의 백성에게 파송할 수 있다는 그들의 종교적 세계관은 바빌로니아 포로 시기 이전에는 보편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약간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신분으로 그 분에 의해 보내졌는가? 둘째, 이런 악령은 하나님 속성의 양면성 가운데 있는 한 양상은 아닐까?<sup>30)</sup> 전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태 일신론적

27) J. Preuss, *Biblical and Talmudic Medicine*, Fred Rosner (옮기고 엮음), (New York/London: Jason Aronson Inc., 1978), 311-13쪽.

28) G. P. Murdock, *Theories of Illness: A World Survey*, (Pittsburgh: Pittsburgh Univ. Press, 1980), 8-20쪽.

29) Idries Shah, *Oriental Magic*, (London: Octagon Press, 1992), 28-34쪽.

(henotheistic) 신정론의 표현 양상인 반면, 후자는 명백히 유일신론 관점에서 본 영적-심리적 해석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셨을 때, 사울은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을 느꼈고, 이 때문에 마음이 극도로 불안정해져 다윗을 볼 때마다 살인적인 시기심과 분노가 그에게 가중되어 정신 이상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미래 독자들의 연장된 연구를 위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첨가한다: 바빌로니아 포로 시기 이후 제 2성전 시기 중 헬레니즘의 영향하에서 쓰여진 유대주의 후기 문헌들 중에는 고대 근동의 축사 행위와 방불한 사례가 신구약 중간 시기에 쓰인 토빗서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서 라파엘은 토빗에게 귀신들린 부인에게서 귀신을 축출할 때, 구운 생선의 간과 심장을 축사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부적을 사용하도록 지시한다(Tobit 6: 18). 이와 유사한 예를 하나 더 들면, 요셉푸스(F. Josephus)는 헬라화된 유대주의 문화권 아래에서 대중적 신념이었던 축사 의식에 일조를 가했다. 그는 솔로몬 왕의 업적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치료하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악령을 추방하는 이 기술을 솔로몬 왕이 배울 수 있게 하셨다.<sup>31)</sup> 솔로몬은 이런 목적에 부합되고 유효한 어떤 일정한 주문 공식을 작성해서 전승했는데, 히스기야 왕 이래로 감춰져 왔던 이 진료 방법은 이 시대에도 (환자에게서 귀신을 축출함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으므로) 대단히 유효하다 .....”<sup>32)</sup>

유대인들과 로마군의 전쟁 당시(66년 A.D.), 로마군의 갈릴리 지역 사령관이요 당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어떻게 그의 고향 사람인 Eleazar가 Vespasian 황제와 황실 관료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코에 놓인 마술 반지를 가지고 콧구멍을 관통해 귀신을 축출하는 데 성공했는지를 두고 상세히 기록하였다.<sup>33)</sup> 게다가 유대인의 외경 문학에는 구마 시에 사용되는 많은 주문들이 있고 그에 대한 많은 예들이 탈무드에서도 발견되며, 이들 주문들은 때때로 질그릇으로 된 마술 주발 안쪽

30) J. K. Kuemmerlin-M'Lean, "Demons (in the OT)," *ABD*, II (1992), 138-140쪽.

31) D. J. Halperin, "The Book of Remedies, the Canonization of the Solomonic Writings, and the Riddle of Pseudo-Eusebius," *JQR* 72/4 (1982), 269-292쪽.

32) 참조 Flavius Josephus, *Jewish Antiquities* Book VIII, ii, 5.

33) 참조 F. Josephus, *The Jewish War* Book VII, vi, 3.

에 새겨 있다.

#### 4. 요약과 결론

이 글의 주제가 고대 근동의 문헌과 구약 성서에 나타난 축사 기사들에 관한 연구이므로, 신구약 중간 문학에 관련된 기사들은 취급하지 않았다. 필자가 지금까지 논술한 바와 같이 히브리 종교 문학은 고대 이스라엘을 둘러싼 고대 근동의 제반 문화 및 종교와의 역학적인 상호 접촉과 교류 속에서 기록되었으므로, 상호 비교 연구를 통해 병치를 시켜보아야 보다 나은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사무엘서 상권과 다니엘서의 축사 기사들은 舊 바빌로니아 시대(2003-1595년 B.C.)부터 전수된 메소포타미아의 동정적(sympathetic) 마술인 축사 의식(Namburbû Ritual)의 문화적 후속들로, 느브갓네살 왕의 악몽을 해몽하기 위해 궁중에 소환된 구마 사제는 초혼술/교령술(Spirit/Trance Mediumship)을 이용한 강신술/주술사(Necromantic Magician)이며, 수금 연주를 통한 악령 퇴출은 축사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내재한 악하고 해로운 영향력(살인적 시기심과 공포심)을 제거하려는 심리적 마술(Mental Magic)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부언하자면, 대하 16장 12절의 "... 유다 왕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야훼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의원들에게 구했다."에서 '의원들'은 이 본문의 정황과 문맥상 rōphîm이 아닌 rephāîm (shades/ghosts of the dead)으로 마땅히 대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 왕 아사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이 가족의 수호신인 Terapim(조상들의 모습을 본 따서 토기로 만든 소형 휴대용 상[figurine]으로, 이것은 점술/마술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던 당대의 가정 수호신이다. 히브리어 rephaim이나, 동족어인 아카드어 tarpû, '망령'[spectre]과 우가리트어 rp'i 등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어원과 개념을 가지고 있다)을 훔쳐 가나안 땅을 향해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달아났을 때, 추격하여 따라잡은 뒤 이 Terapim을 자신의 신(Elohim)이라고 호칭한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문헌학자들은 영어의 Therapy란 용어의 어원을 히브리어 rāphā ‘치료하다, 회복시키다’와 동일한 어원을 가진 아랍어 teraph (Taph'al Form/A(H)ph'el Form)의 재귀형으로 ‘부드럽게 만들다’ 혹은 ‘환영’(fantasy [Gk. phantasma, ‘유령’이나 ‘공포’를 내쫓다])에서 찾는다. 이러한 주장을 수락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널리 애용되는 심리 요법은 원시 수렵/어로 시대에 태동하여, 고대 근동(Orient)의 셈족들의 주변 환경인 초원 지대의 황량한 질풍(Sum. Līl)의 이미지에서 발전한 Eṭe(i)mmū, ‘망령’(ghosts)을 대적하는 (w)‘āšpūtu, ‘구마 의식’이 현대 문명의 복장(garb)을 하고 출연한 형태라 할 수 있다.<sup>34)</sup>

고대 셈족들의 종교 문화의 유산으로서 축사 의식(우리말로 ‘푸닥거리’ [액막이 굿]: 날 짐승의 깃털로 제조된 의복을 입은 강신무[‘새타니’]가 살풀이 의식을 하는 행위에서 유래된 말, 필자 주)은 인체나 지역에 침투해 인간에게 우환과 질고를 일으키는 귀신의 침투 경로를 추적하여 알아내고(참조: shā'al, ‘ask’ [the dead] she'ōl, ‘음부[realm of death]), 음부에 있는 망령(들)을 초혼(calling up)하여 현세의 사람들을 위해 짐을 치거나, 이런 망령들을 축출하여 질병을 치유하는 밀교적(esoteric) 행위이며, 그들의 침입 경로를 역순으로 주위 사람들이 응시하고 있는 가운데서 축사하는 이 종교 의식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원하여 이란 고원 지대와 중앙 아시아의 알타이 산맥을 넘어 서 시베리아로, 거기서 동 시베리아를 통과하여 바이칼 호수 주변에 정착한 브리야트 공화국으로, 그리고 만주를 거쳐 드디어 우리 한반도에 상륙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필자는 추정하며, 이 의식의 전래 경로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겠다.

## 5. 참고문헌

- Barton, G. A., *Semitic and Christian Possession*. In *Encyclopaedia of religions and Ethics*, 10 (1918), 133-139쪽.  
 Budge, E. A. W., *Amulets and Talismans*, (New York: Citadel, 1961), 354-365쪽.  
 Burden, J., “Magic and Divination in the OT and their Relevance for the Church in Africa,” *Missionalia* 1 (1973), 103-111쪽.

34) 참조 Psychotherapy<Mod. Lat. therapia<Gk. therapeia, therapeuein, ‘看護하고 治療하다’ & Psychiatry<Mod. Lat. psichiatria<Gk. psychē, ‘soul’ +iatreia, ‘治療’, ιατρός/ιατρίη (modern healer.’ : 比較 Akk. ‘āšipu, ‘축사자’(exorcist).



- Collins, J. J., "The Court-Tales in Daniel and the Development of Apocalyptic," *JBL* 94 (1975), 218-234쪽.
- Cunningham, G., *Deliver Me from Evil: Mesopotamian Incantations 2500-1500 BC*,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7).
- Deller, K./W. Kazuco, "Šukku, Šakkulu, 'abwischen, auswischen.'"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70 (1981), 213ff.쪽.
- Farmer, H. G., *The Influence of Music: From Arabic Source: A Lecture Delivered before the Musical Association*, (London: Oxford Univ. Press, 1926).
- Fossey, Ch., *La Magie Assyrienne*, (Paris: Felix Alcan, 1902).
- Geller, M. J., *Forerunner to UDUG-HUL: Sumerian Exorcistic Incantations*, (Stuttgart: Steiner Verlag, 1985), 3-15쪽.
- , "Babylonian Influence on Hellenistic Judaism." J. M. Sasson(ed.), *Civilization of the Ancient Near East* Vol. 1 (New York: Scribners, 1995), 43-54쪽.
- Green, T. M., *The city of the Moon God: Religious Tradition of Haran*, (Leiden/New York/Köln: AveBooks, 1992).
- Guillaume, A., *Prophecy and Divination among the hebrews and other Semitics* (London: Hodder & Stoughton, 1938).
- Halperin, D. J., "The Book of Remedies, the Canonization of the Solomonic Writings, and the Riddle of Pseudo-Eusebius," *JQR* 72/4 (1982), 269-292쪽.
- Kuemmerlin-McLean, J. K., "Demons (in the OT)," *ABD*, II (1992), 138-140쪽.
- Langton, E., *Essentials of Demonology: A Study of Jewish & Christian Doctrine, Its Origin & Development* (London: Epworth Press, 1949), 2-4쪽
- Lévi-Strauss, Claude, "The Sorcerer and His Magic" A. C. Lehman/J. E. Myers(eds.), *Magic, Witchcraft and Religion: An Anthropological Study of the Supernatural* (Palo Alto & London, 1985), 263-272쪽.
- Merriam, A. P., *The Anthropology Music*,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1964).
- Murdock, G. P., *Theories of Illness: A World Survey*, (Pittsburgh: Pittsburgh Univ. Press, 1980), 8-20쪽.
- Oesterreich, T., *Possession and Exorcism: Among Primitive Races in Antiquity, the Middle Ages & Modern times*, (New York: Causeway Book, 1974).
- Preuss, J., *Biblical and Talmudic Medicine*, Fred Rosner(옮기고 엮음), (New York/London: Jason Aronson Inc., 1978).
- Radcliffe-Brown, A. R., "Taboo," W. A. Lessa/E. Z. Vogt(eds.), *Reader in Comparative Religion: An Anthropological Approach*, (New York/Evanston/London, 1965<sup>2</sup>), 112-123쪽.
- Russell, J. B., *The Devil: Perception of Evil from Antiquity to Primitive Christianity*, (Ithaca/London: Cornell Univ. Press, 1977).
- Sachs, C.,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 (New York: W. W. Norton & Co. Inc., 1940), 105쪽.
- Sculock, J. A., "Magical Uses of Ancient Mesopotamian Festivals of the Dead," M. Meter/P. Mirecki (eds.), *Ancient Magic and Ritual Power*, (Leiden: Brill Academic Press, 1995), 93-107쪽.

- Shah, I., *Oriental Magic*, (London: Octagon Press, 1992), 28-34쪽
- Shy, H, "Ruah Rā'a (Melancholy) as seen by Medieval Commentators and Lexicographers," *KROTH* Vol. 8 No. 5-6 (1982), 94-102쪽.
- \_\_\_\_\_, *Al-Murshid al-Kafi of tanhum ha-Yerushalmi*, Dissertation of Hebrew University, Jerusalem, Vol. 2 (Lexicon in Arabic & Hebrew tr., 1975).
- Thomson, R. C., *The Devil and Evil Spirits of Babylonia*, (London: Kessinger Pub. Co., 1903) 39-50쪽.
- \_\_\_\_\_, *The Semitic Magic: Its Origin and Development*, (London: Kessinger Pub. Co., 1908).

## 검색어

축사/구마

천사

악한/더러운 영(들)

정령숭배

조상숭배

유일신론

문화적 접촉

투고일: 2009년 5월 1일

심사일: 2009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5일

---

## A Study of Texts Relevant to Exorcisms Latent in the Old Testament

---

**Kwang-Yong Chang**

Adjunct Professor at Soongsil University  
London University Ph.D.

In the present day Korean churches are facing the big problems whether they have to practise exorcistic ritual or not in their worship service. In such spiritual circumstances it is very necessary for us to pursue the identity of warding off evil/unclean spirits for healing the sick in Israel and its surrounding countries.

Thus, it is very important and worthwhile to investigate and discuss the exorcism narratives in both the Old Testament and the ancient Near Eastern texts just before the Medo-Persian period.

This, however, is proving increasingly difficult because we lack precise knowledge for an adequate study on the subject. So the author took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attempt to suggest possibl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of relevant texts.

To achieve this goal it is essential to recognise that the Judeo-Christian inheritance on the subject in question should be related to similar beliefs found amongst the neighbours of Israel, with whom, at various periods, the Hebrews came into close cultural contact. For their

beliefs in demons or evil spirits and angels were very intimately related to both primitive animism and the necromantic (spiritistic in the present day) belief in the survival of departed human spirits.

However, the Old Testament does not explicitly state much about the apotropaic accounts while the New Testament shows us exorcism narratives as more than one third of Synoptic Gospels is in regard to healing the sick. It can be argued that this is mainly because we have lost the relevant texts in the Old Testament that dealt with the various exorcism accounts in the pre-Exilic period.

Therefore, one can only treat the assumption or hypotheses put forward by these scholars with some misgivings for there is no documented evidence to support their theories. The problem can be solved if we try to pursue the relationship between Yahwism, the ethical monotheism of Israel and the family worship in Canaan and the ancient Near East. It is where we discover lots of exorcism accounts written on the basis of the sympathetic magic since the Old Babylonian period.

In an attempt to solve this issue that exorcism narratives do not appear in the Old Testament, one can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Jewish religious authority concerned ruled out exorcisms accounts because spiritism threatened Yahwism in a matter of redaction of the Hebrew Bible since Josiah, the king of Judah.

#### **Keywords**

Exorcisms  
angels  
evil  
unclean spirits  
animism  
family worship  
monotheism  
cultural contact